

응구기와 시옹오의 범아프리카주의

- 포스트식민 국가를 넘어서는 주변부의 기억과 연대*

이 효 석
(부산대학교)

❖ 국문초록

근대 이후 많은 지역이 국가 단위를 넘어선 대륙 단위의 통합체를 구상한 바 있다. 오래 전부터 지구촌의 각 대륙에서는 범아랍주의, 범라틴아메리카주의 나아가 범아시아주의를 구상한 사상가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선 지역과 세계의 행복한 관계를 구현할 수 있는 체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 내의 국가를 하나로 묶는 작업은 국민국가의 폐쇄성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그 지역이 공유하는 문화적 가치와 다른 지역과 다른 역사적 특징과 지역적 경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세계시민주의와도 구별된다. 이러한 사상이 유럽연합이나 남미국가연합처럼 구체적인 정치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국민국가처럼 일정한 폐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은 분명하다. 국민국가와 세계 사이의 중간지대를 지향하는 이러한 운동을 우리는 ‘국가를 넘어선 국가주의’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케냐라는 국민국가의 차원에서 외세로부터의 경제적, 문화적 자주독립과 독재로부터의 민중의 해방을 위해 활동해 온 응구기는 아프리카연합에 주목하면서 이 기구가 지향하는 범아프리카주의는 유엔, 미합중국, 유럽연합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응구기는 현재의 아프리카의 질곡은 다양한 문화적 기원을 가진 부족들이 혼재하던 공간에 인위적인 국경선을 채우고 그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59).

공간 속을 살게 된 아프리카인들이 국민국가의 이기적인 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는 범아프리카주의를 통해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아프리카의 구성원들이 근대 국민국가의 과도한 소비니즘적 욕망을 제어하는 민중의 연합을 꿈꾼다.

주제어 : 응구기 와 시옹오, 범아프리카주의, 프란츠 파농, 포스트식민, 흑인의식

1. 들어가며

응구기 와 시옹오(Ngugi wa Thiong'o)는 지난 2013년 <아프리카통일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의 50주년을 맞이한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 이 기구가 미국의 사상가 두보이스(W.E.B. Du Bois, 1868-1963)의 범아프리카주의(Pan-Africanism) 전통을 계승한 기구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그 영향력이 “약화된 조직”이라는 점을 크게 아쉬워했다.¹⁾ 응구기 자신이 그간 꾸준히 범아프리카주의를 표방해 온 사상가로서 많은 평론을 통해 아프리카인들에게 근대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사유와 행동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볼 때, 그가 <아프리카통일기구>가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점을 아쉬워하는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대 이후 많은 지역이 국가 단위를 넘어선 대륙 단위의 통합체를 구상한 바 있다. 응구기의 지적처럼, “국가연합”에는 이미 “유엔, 미합중국, 유럽연합” 등이 현존하는 마당에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이 존재하는 것이 하등 이상할 것은 없어 보인다.²⁾ 사실 오래 전부터 지구촌의 각 대륙에서는 범아랍주의(Pan-Arabism), 범라틴아메리카주의(Pan-Latin Americanism) 나아가 범아시아주의(Pan-Asianism)를 구상한 사상가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선 지역과 세계의 행복한 관계를 구현할 수 있는 체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컨대 에바

1) Ngugi wa Thiong'o, “After 50 years, unity is still an African dream,” The Guardian, May 23, 2013.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3/may/23/unity-dream-african-union-inspire>>

2) Ibid.

골링저(Eva Golinger)는 2000년 이후 구성된 중남미 국가들의 연합체인 ALBA(Bolivarian Alliance for the Peoples of Our America)와 UNASUR (Union of South American Nations) 등이 이 지역에 “사회정의를 확대하고 긍정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 지역에 빈곤과 소득격차를 현저히 감소시켰고 사회복지와 삶의 질, 그리고 정치에의 직접 참여를 상당히 고무시켰다”³⁾고 평가한다. 그녀의 긍정적인 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인지는 따져볼 일이지만, 이 지역 사람들에게 시몬 볼리바르(Simon Bolivar, 1783-1830)와 호세 바스콘셀로스(Jose Vasconcelos, 1882-1959) 이후 중남미의 통합에 대한 믿음의 전통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사실 아시아에도 서구와의 접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근대 이후 한중일의 사상가들은 범아시아주의라고 부를 만한 주장을 개진하였다. 안중근의 ‘동양 평화사상’, 일본 초기 급진적 자유민권론자들의 ‘아시아지역평화사상’, 러시아 동방주의자들의 ‘동방주의,’ 중국 손문의 ‘대아주의의(大亞洲主義)’는 자발성과 수평적 연대에 기초하여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지향한 다양한 의견들이었다(정희석 3). 이들은 아시아라는 지역적 근접성과 문화적 연대감을 바탕으로 정치군사적으로는 평화주의적 정신에 입각하여 국가 사이의 전쟁을 반대하고 영토불가침, 내정불간섭, 동권, 주권존중, 자주독립에 대한 원칙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동북아 상호교류와 물류의 활성화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실현을 주장하였다. 수평적 연대와 평화주의에 근거한 범아시아주의는 당시의 복잡한 제국주의적 시대상황 속에서 실현되기 힘들었지만 그것이 가지는 이상주의는 지나간 사상으로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지역 내의 국가를 하나로 묶는 작업은 국민국가의 폐쇄성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그 지역이 공유하는 문화적 가치와 다른 지역과 다른 역사적 특징과 지역적 경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세계시민주의와는 구별된다. 이러한 사상이 유럽연합이나 남미국가연합처럼 구체적

3) Eva Golinger, “A Union is Born: Latin America in Revolution,” *Global Research*, Dec. 8. 2011. <<http://www.globalresearch.ca/a-union-is-born-latin-america-in-revolution/28116>>

인 정치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국민국가처럼 일정한 폐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은 분명하다. 국민국가와 세계 사이의 중간지대를 지향하는 이러한 운동을 우리는 ‘국가를 넘어선 국가주의’⁴⁾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인 아규먼트>(African Arguments)의 편집진에 따르면, 1960년대 독립의 물결 이후 ‘블랙 아프리카’에 많은 영향을 준 여러 가지 개념들 가운데 “범아프리카주의는 민주주의 다음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개념이었다.”⁵⁾ 역사적으로 볼 때, 최초의 범아프리카주의는 19세기 말 “공동의 정체성의 추구” 즉, “노예제와 식민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전 세계에 걸친 흑인들을 통합하는 일”이었다. 이를 토대로 1963년 만들어진 <아프리카통일기구>는 2002년 탄생한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의 전신이다. 오늘날 다수의 아프리카인들은 범아프리카주의를 “정체성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와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문제와 관련된” 이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블랙 아프리카의 통합을 이야기하는 범아프리카주의가 이념으로 존재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아프리카 내부의 갈등과 외국인혐오증”(intra-African conflicts and xenophobia)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역설적인 현상이다.

이 글은 케냐(Kenya)라는 국민국가의 차원에서, 외세로부터의 경제적, 문화적 자주독립과 독재로부터의 민중의 해방을 위해 활동해 온 옹구기가 범아프리카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그가 이 개념을 그가 오랜 동안 견지하고 있는 유럽중심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다양한 중심 만들기’와 서구의 제국주의 언어를 넘어서 ‘아프리카 토속어의 사용’ 등의 논의와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럴 경우, 옹구기 사상과 문학이 끊임없이 현실과 호흡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 유럽연합이나 아프리카통일기구와 같은 거대 지역을 통합하려는 운동을 ‘국민국가를 넘어선 지역통합주의’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고자 한다는 점에서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와 부분적으로 겹치는 요소도 있지만, 지역주의가 지역의 외부와 내부를 구별한다는 점에서 초국가주의와는 조금 구별된다.

5) African Arguments Editor, “The Rise and Paradoxes of Pan-Africanism Today.” <<http://africanarguments.org/2015/06/30/the-rise-and-paradoxes-of-pan-africanism-today/>>

II. 주변부의 포스트식민성과 국민국가 구성의 문제

주변부의 경험이 지역과 시간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서구의 제국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지금도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상황 즉, ‘포스트식민성’(postcoloniality)을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개별 인간이나 개별 지역 모두에게 해당한다. 예컨대 카리브연안 지역 흑인의 정체성은 마르티니크(Martinique)나 자메이카(Jamaica)의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만, 스튜어트 홀(Stuart Hall)의 지적처럼, 서구에 의해 노예의 신분으로 강제로 이송되어 집단농장의 경제체제 속으로 편입된 그러한 경험이 오히려 “이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합하는’”(Hall 227) 역할을 한다.

선진국 서구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거의 ‘동일’하다. 우리는 주변이고 저개발이며 변방이고 ‘타자’이다. 우리는 메트로폴리탄 세계의 외곽이며 ‘가장자리’이다. 예컨대 아메리카 북부에 대해 언제나 남부인 것이다. (Hall 227-28)

권력의 중심을 자처하는 서구에 대해 타자인 주변부는 각 지역의 경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가장자리가 공유하는 포스트식민성의 동질성으로 인해 주변부 사회는 역사와 정치적 상황이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응구기가 아프리카의 다양한 독립국가들이 범아프리카주의의 우산 아래 모일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공유된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요컨대 포스트식민성은 “서구 이외 지역의 제국주의의 유산(the heritage of imperialism in the rest of the globe)”(Spivak 316)이다. 이러한 경험 때문에 이전 식민지 국가 출신의 사람들은 “제국의 문화에 접근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서로와 소통할 수 있고… 친목을 나누고 초국가성을 확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포스트식민적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들은 식민과 포스트식민의 경험과 영향의 보편적 상황으로 인해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가 가능하다. 제국의 구조가 달갑지 않은 유산이 그대로 이어지는 포스트식민 사회를 새로이 재구(再構)하고 반민주 세력에 저항하려는 주변부 민중의 연대의 가능성

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스트식민 국가의 한계에 대해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란츠 파농은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제 3세계 국가의 지배계급을 부르주아지 엘리트로 규정하고 그들의 한계와 무능력을 비판한다. 그가 볼 때, 제국주의에 대한 식민시대의 민족주의 투쟁은 한마디로 말해 “인간의 억압에 저항하는 민주화투쟁(fight for democracy against man's oppression)”(97)이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강제노동, 신체적 차별, 불평등한 임금, 정치 권리의 제한 등과 같은 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근대적이고 보편적인 거대한 책무는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는 그 해당 독립국의 엘리트층 즉, “상업엘리트와 대학졸업자들”이 떠안게 되지만 이들 부르주아지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계급적 특권을 유지하고 당파적인 이익을 취하는 일에만 몰두함으로써 진정한 민족적 통합을 이루는 데 실패하고 만다. 따라서 “식민지 민족 부르주아지는 서구 부르주아지의 마지막 단계와 일치한다”(101).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이 볼 때, 제 3세계 포스트식민 독립국의 사회구조가 제국주의의 그것과 구별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민족 엘리트가 부르주아지적 욕망과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 있다. 이때 부르주아지의 행동을 결정하는 유일한 지침은 “외국인을 대체하라”일 뿐이다. 그들은 사회의 엘리트로서 “법을 손에 쥔” 포스트식민 사회의 각 분야로 진출하여 제국주의 세력이 떠난 “빈자리를 차지하고”(105) 권력을 장악한다. 이들은 포스트식민 사회의 요직을 차지하는 특권을 누리면서도 자신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를 거부”(106)하는 무책임함을 드러낸다.

파농은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의 지도층이 유럽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게 되면서 반대로 경쟁의 상대를 자국 내의 소수민족들에서 찾는다고 본다. “신생국의 지도자와 산업 부르주아지의 야망이 유럽인에 의해 좌절됨에 따라” 그 대신 “다른 나라에서 온 아프리카인들과 경쟁하게 된다”(104). 그래서 그들은 “아프리카인과 아랍인의 개념을 자기네 영토의 한계 내에서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아프리카의 통일이라는 개념은 망각 속으로 점점 사라지고 극악하고 치명적인 쇼비니즘(the most heinous and virulent type of chauvinism)”(105)이라는 가장 나쁜 형태의 애국주의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농은 포스트식민 사회를 망치는 세력을 비단 지배 엘리트 집단에 게만 두지는 않는다. 그가 볼 때, “이전에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의 이양”에만 관심을 갖는 부르주아지 계급의 이기심을 본 따 “대중도 자신의 수준에서 그와 똑같은 요구를 한다”(104).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 양자가 공히 노정하는 이러한 이기적 태도는 제 3세계 국가들 간의 진정한 통합 대신에 “극악하고 치명적인 소비니즘”(105)과 “인종적 긴장(ethnic tensions)”(106)을 야기한다. 그것은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적 부의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결핍된 지역은 “시기와 탐욕과 살인의 충동을 드러내는 증오심(hatred detecting envy, greed, and murderous impulses)”(106)을 가지고 다른 지역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파농은 제국이 남긴 계급적 차별과 지역적 차이의 유산이 포스트식민 사회의 계급과 지역에 반복되는 이유를 개인과 집단의 이기심에서 찾는다. 파농은 포스트식민 사회의 오류를 오로지 지배 엘리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는다. 사회 구성의 책임은 엘리트나 일반 시민 모두의 몫이며 그 결과의 책임 역시 모두가 함께 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이 자신 혹은 자기 나라의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움직일 것이 아니라 자기와 동일한 상황 속에 있는 다른 사람과 국가에 대해서도 의무감을 가져야한다는 말이다.

자아에 대한 의식이 소통의 문을 열어 잠그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민족의식은 민족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국제적 차원으로 만드는 유일한 요소이다. 민족의식과 민족문화의 문제는 아프리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아프리카에서의 민족의식은 아프리카인의 의식과 정확히 동시적으로 발생한다. 민족문화에 대한 아프리카인의 책임은 아프리카 니그로 문화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이 두 가지 책임은... 식민주의의 늪에 빠져 있는 아프리카에서 독립한 나라들이 있다하더라도 그 나라 역시 아직 연루된 상태라는 사실, 여전히 연약하고 항구적인 위협에 빠져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관계한다.⁶⁾

6) Frantz Fanon, “Frantz Fanon Speech at the Congress of African Writers in 1959,” *Pan-African News Wire*, Dec. 24, 2015. <<http://panafricannews.blogspot.kr/2008/>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연대의 책임, 바로 여기에서 범아프리카주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것이다.

III. 응구기의 세계인식과 포스트식민 아프리카에서의 범아프리카주의의 효용성

응구기는 현 단계 신식민주의와 세계화에 저항하는 방안으로 국민국가 단위의 운동보다는 범아프리카주의를 통한 단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그는 서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의 강력한 통일된 민주적 아프리카”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아프리카연합은 “아프리카 국가 수장들의 연합이 아니라 민중의 연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⁷⁾

응구기는 그동안 그의 소설을 통해 케냐로 대표되는 아프리카 탈식민 국민국가의 독재정권과 정치적 탄압, 길고 민중의 수난 등을 묘사하였다. 그것은 『울지 마라, 아이야』(*Weep Not, Child*, 1964)에서부터 가장 최근의 소설인 『까마귀 마법사』(*Wizard of the Crow*, 2006)에게까지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그의 정치적 담론은 민중의 삶의 차원을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아프리카 대륙의 차원을 대상으로 한다. 프란츠 파농의 경우, 범아프리카주의는 주로 민족해방투쟁과 국민국가 건설 전후의 시대를 배경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응구기는 파농의 논의를 따라가면서도 21세기 세계화의 시대를 직접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넓은 범주에서 이야기를 진전시켜 나간다.

응구기는 「아프리카의 정체성: 세계화와 자본주의적 근본주의 시대의 범아프리카주의」(“African Identities: Pan-Africanism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Capitalist Fundamentalism”)에서, 아프리카의 역할과 정체성을 세계적 차원에서 질문한다. 그는 현재 세계의 상황을 “불결함 속의 화려함(splendor-in-squalor)”⁽²¹⁾이라고 부르며 이런 “경제적 세계화”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12/frantz-fanon-speech-at-congress-of.html>

7) Ngugi wa Thiong'o, “After 50 Years, Unity is Still an African Dream,” *The Guardian*, May 23, 2013.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3/may/23/unity-dream-african-union-inspire>>

모순 하에서 “아프리카의 위치”가 과연 어디인지를 질문한다. 그가 볼 때, 세계화는 자본주의적 모더니티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현재의 세계화는 한 마디로 “자본주의적 근본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실천적 명령”이다. 그것이 ‘근본주의’인 까닭은 모든 지금까지의 정치, 경제, 종교의 근본주의가 그러했듯이, “현실을 조직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만 있다”(there is only one way of organizing reality)(23)고 주장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서구 주도의 세계화는 “레이건과 대체, 그리고 콜 총리 시대”를 거치면서 강화되었는데, 이들이 주도하는 세계질서 하에서 “아프리카와 같은 주변부 자본주의 사회들의 정치경제”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응구기는 무엇보다도 20세기에 독립한 신생 주변부 국가들의 정치, 경제,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서구의 이데올로기와 발전된 기술로부터 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첫째, “자본주의적 근본주의”가 주도하는 세계화는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속성 즉, 국가의 경제정책을 결정할 권리에 도전”한다. 둘째,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의 발달은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의 흐름과 교환”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게 만들으로써 “국민국가 내부의 통제력을 허물고 있다.” 셋째, NGO조차 서방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의 세속적 선교사”가 되어 사회적 요구를 제공하고 지식인의 고용주가 되어야할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려 들고 있다. “자본이 초국가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아프리카를 위시한 수많은 제3세계 국가들은 “금융자본의 작동을 통제하기에 너무 허약하다”고 진단한다(24). 그 결과 전통적인 국가 내부의 “가진 자(the haves)”와 “가지지 못한 자(the have-nots)”로 양극화된 구조는 극복되지 못한 채, 세계는 다시 “소수의 구미 부국과 대다수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빈국”(25)으로 양극화되는 양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계급의 양극화의 문제가 국가의 양극화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응구기는 서구의 거대한 영향력 앞에서 아프리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할지를 고민하면서 19세기에 미국이 유럽의 식민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립정신(self-reliance)과 자신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랠프 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의 주장을 따른다. 응구기는 아프리카가 경제적 양

극화를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자본주의적 근본주의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세계라는 무대의 “동등한 참여자”이자 세계 경제의 “동등한 수여자이자 수취인”(26)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자기점검 (self-examination)”과 “자립정신”(27)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따라서 서구에게 의존하기를 멈추고 “자기신뢰(belief in self)”를 바탕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응구기가 아프리카 예술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아프리카 르네상스’(African Renaissance)나 근대성의 아프리카적 형상화를 말하는 ‘아프리카-모더니티’(Afro-Modernity)와 같은 개념들을 통해 아프리카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것들은 모두 아프리카의 유산에 대한 강한 신념과 자신감이 반영된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챔비 차차게(Chambi Chachage)는 응구기가 말하는 이러한 개념들은 차치 “범아프리카주의를 인종적 기획으로 추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응구기가 범아프리카주의의 우산 아래 모으려는 주체들이 ‘아프리카계 후손’(African descent) 일반을 의미하는 본질주의적인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그것은 “범아프리카주의를 인종주의적 구성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차차게는 줄리어스 N. 은예레레(Julius N. Nyerere)의 말을 빌려, 아프리카인이 누구냐에 대한 정체성은 그녀가 “흑인종이든, 갈색인종이든, 백인종이든 아프리카 대륙을 고향으로 삼은 모든 사람들”로 볼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범아프리카주의는 포스트-인종적(post-racial)”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⁸⁾ 그런데 차차게의 염려는 응구기가 아프리카의 유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프리카 내에서 주류의 문화는 서구의 백인문화가 아닌지를 의심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놓치고 있다. 응구기는 서구문화가 세계의 중심으로 자처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변부 문화의 부활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 흑인 문화의 우월성과 그것만의 중심성을 주장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흑인 문화의 문제는 응구기가 아프리카의 독립투쟁에서 지식인이 그동안 담당해온 역할과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한 문제와도 어느

8) Chambi Chachage, “Which Pan-Africanism? A Critical Reading of Ngugi's ‘Remembering Africa’,” <<http://www.tlaxcala-int.org/article.asp?reference=234>>

정도 관계한다. 과거 독립 투쟁을 전후하여 지식인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중산층 즉, 신식민지 부르주아지와 달리 해방을 위한 다양한 지식을 갖춤으로써 “대중과의 유기적 관계”(African Identities 28)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응구기는 케냐의 민족해방투쟁에 앞장섰던 선배 지식인의 성격을 이렇게 규정한다.

국가영토 내의 차원에서, [지식인 계층]은 식민정권의 분리하고 지배하는 전략에 맞서 민족적 단결을 비전을 담당한다. 대륙적 차원에서, 이 계층은 범아프리카주의의 비전을 제시한다. 이때 범아프리카주의는 대륙 내에 거주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의 상태에 있는 자들까지 포괄한다. (따라서 아프리카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와 북아프리카(North Africa) 등으로 구분하고 그 지역적 정체성이 주요 유럽 강대국의 영향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하는 식민주의자의 속임수를 거부한다.) 국제적 차원에서, 반식민주의 투쟁은 제국주의 집단을 적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광산과 농장, 제조업체와 은행을 소유한 국제적 집단이다. 달리 말해, 이들은 가난한 자들의 비참한 상황을 착취하는 자들이다. 지식인계층은 자신에 대한 지식과 역사 속의 자신의 위치를 아는 자들이다. 이들은 비전으로 무장한 자들이다. 이들은 제국주의에 맞서는 성공적인 반식민투쟁의 강력한 밑거름이다. (28)

응구기는 이전의 지식인들이 아프리카 해방투쟁의 기획과 실천에 얼마나 깊이 기여했는지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들의 공로 중의 하나는 유럽에 의해 인위적으로 재단된 아프리카의 지리와 역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시도였다. 한편 크와메 난탐부(Kwame Nantambu)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범아프리카주의는 아프리카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서구의 제국주의적 접촉과 침탈이 일어난 근대 이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 유럽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범아프리카주의 운동을 대륙별, 지역별로 세분화하는 분석 역시 “유럽의 분할 정복 정책”(European divide-and-conquer maneuver)을 영속화하는 것이며 범아프리카주의 운동을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한다.

범아프리카주의 투쟁은 지리적으로 분산되거나 탈구된 아프리카인이나 그 후손들에게 한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되면 이는 식민지배자들의 손에 놀아나는 꼴이며 우리에게 대한 그들의 통제와 착취를 더욱 쉽게 만들게 된다. 우리가 특정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것은 노예제의 기획 때문이지 노예제 그것 때문은 아니다. (563)

따라서 범아프리카주의 혹은 저항운동을 특정 지역별로 구별해서 사고하는 것은 “유럽화에 저항하는 범아프리카 민족주의 투쟁 일반의 총체”(564)를 분석하는 목적 대신 저항운동의 다양한 방법론과 지역별 개성에 대한 특수한 연구로 빠져버릴 것이다. 난탐부는 아프리카인의 정체성과 통합에 대한 큰 목표를 위해서는 범아프리카주의에 대한 이해를 “사하라 이남지역 범아프리카주의(Sub-Sahara), 사하라 횡단지역 범아프리카주의, 대서양 횡단 범아프리카주의(trans-Atlantic), 서반구 범아프리카주의, 글로벌 범아프리카주의”(562) 등으로 지역별로 구분하는 방식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볼 때, 이러 범아프리카주의는 유럽을 포함한 외세에 저항한 아프리카인의 역사를 간과하는 좁은 시각이다. 그것은 아프리카의 투쟁의 역사를 15세기 유럽인의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반응”(564)으로만 보는, 다시 말해 마치 15세기 이전에는 아프리카에는 대륙 전체에 대한 통합이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것처럼 말하는 즉, 아프리카 역사의 부재를 강조하는 지극히 “유럽중심적이며 반역사적이고 선언적인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

난탐부는 “고대부터 아프리카는 유럽계 및 비유럽계 외부 침략자들에 맞서 투쟁”했으며, “최초의 범아프리카 민족주의적 통일은 약 B.C. 3200경인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568)고 본다. 그는 이러한 “아프리카중심적 관점”이 아프리카 역사를 보는 관점이 되어야한다고 말한다. 그는 아프리카의 역사를 지역적 차원에서 세분하여 구별하는 기존의 유럽중심적인 범아프리카주의 대신 “범아프리카 민족주의”(Pan-African Nationalism)을 주창한다. 이것은 “아프리카인이 모든 유형의 외세의 공격과 침략에 맞서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싸우는 민족주의적이고 단결된 투쟁/저항”(569)을 가리킨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응구기의 아프리카의 지리적 개념은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을 구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난탐부와 일치한다.

응구기는 독립 이전과 독립 이후 아프리카의 국민국가 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아프리카의 엘리트 지식인들의 기여와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그들의 한계를 모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서구의 언어로 학습한 서구의 지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려 든 점을 현재의 신식민지적 문제를 낳은 씨앗이라고 지적한다. 서구의 국민국가 단위의 국가 운영 방식을 따른 결과, 아프리카 지역 전반에 걸쳐 “국가의 통일, 아프리카의 통일, 범아프리카주의의 비전”에 대한 애초의 기억은 점점 사라지고 심지어 “근시안적인 민족적, 부족적 시각”(African Identities 29)으로 축소되고 천박해져 버린 원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요컨대, “아프리카의 지식인 엘리트(the African educated elite)의 유럽 부르주아지의 기억 속으로의 언어적 합병”이 “아프리카의 낙후”(30)를 낳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독립 이후의 달라진 “포스트식민적 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은 지식인이 “아프리카에 대한 자기 상상력(self-imagination)”이 부족하고 “서구적 헤게모니의 경제, 정치, 문화의 형틀(matrix)을 넘어서는 대안들”에 대한 사고력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응구기는 이러한 한계를 비판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범아프리카주의를 제시한다. 우선 첫째로, 그는 “서구식 국민국가의 개념”을 넘어서기 위해 국가의 경계(border)의 문제를 다시 생각할 것을 권고한다. 아프리카에서는 과거부터 “경계는 상호교환을 위한 만남의 장소”이자 “지식과 문화가 횡단하는 교류의 장”(30-31)이었다. 요컨대, “경계는 분리하기 보다는 결합하는 장소였다.” 그러나 유럽식 국민국가에서는 “소유의 개념”이 강화됨으로써 경계는 “폐쇄 공간”이자 “들고 나는 단일한 지점”으로 전락하고 “벽”이 되고 말았다. 경계의 내부와 외부를 구별하는 이러한 태도는 “대농장, 식민지, 감옥, 그리고 국민국가”(31) 자체를 구성하고 통치하는 방식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아프리카의 독립된 국민국가들은 1884년의 서구열강의 베를린 협약에 따른 인위적인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포스트식민 아프리카 독립국들”은 베를린협약에 따라 구성되고 경계 지어진 “식민지국가의 국민국가화(nationalization of colonial state)”(32)였던 것이다.

응구기가 볼 때, 이러한 인위적인 서구식 국민국가의 자기폐쇄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다른 상상력, 즉 앞에서 말한 자기-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때 그는 ‘범아프리카주의’를 거론한다. 이것은 “유럽에 의한 식민화의 기억으로 정의되고 분류된 그 방식에 도전하는 투쟁”(32)이며 “통일된 아프리카” 혹은 “내부의 경계가 없는 아프리카,” 나아가 “국가 공동체로서의 합법적 역할을 구가하는 아프리카”를 상상한다. 그것은 “공동의 의회, 공동의 화폐, 경계를 넘나드는 이동의 자유”(33)를 가진 “유럽연합”과 유사한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옹구기는 아프리카에도 범아프리카주의에 입각한 연합 구성체가 구성되면 유럽연합처럼 “세계화된 세계의 자원을 더 많이 공유할 수 있는 강한 위치”를 부여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의 선결조건은 국민국가의 폐쇄성을 넘어서는 인식인 것이다.

옹구기는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선 범아프리카주의를 위한 두 번째 조건으로 “아프리카 언어의 회복과 사용”을 든다. 민중과 유리된 아프리카 엘리트의 정치적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의 토대로서의 “진정한 기초인 민중(*The People*)”(33)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민중의 언어는 서구의 지식을 담고 있는 제국의 ‘중심’의 언어가 아닌 ‘주변부’ 아프리카의 토속어이다. 서구의 언어에 토대를 둔 근대적 패러다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고는 아프리카의 주변화된 자기 언어로 이루어진 자기 상상력과 자립정신, 그리고 자기 긍정의 새로운 중심들을 생산해내는 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다른 언어가 다른 지식과 다른 문화를 만들고 다양한 문화들로부터 다양한 중심들의 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옹구기는 “많은 언어와 문화적 경향들로 구성된 아프리카가 통합될 수 있는가?”(*Can an Africa of many languages and cultural tendencies unite?*)(34)라고 질문함으로써 공용어와 단일 문화에 비해 떨어질 수 있는 소통의 효용성의 문제를 고민한다. 그러나 그는 언어의 다양성이 발전의 장애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실제로 “아프리카 국가는 모두 그 내부에 다양한 국적소유자와 언어사용자”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제는 “한 국가의 국민들, 나아가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아프리카 민중들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35)의 해결 방안인 것이다. 그것의 해결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번역’이다.

번역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의 언어를 풍성하게 하고 그것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시키는 일이야말로 아프리카의 통합을 위한 문화적 기초를 닦

는 최상의 방법이 된다. 서로 다른 아프리카어로 작성된 모든 책들이, 아프리카든 디아스포라든 모든 아프리카인들이 그들의 언어로 작성한 모든 책들이 모든 아프리카 언어 각각으로도 모두 다 이용 가능한 경우를 상상해 보라. (35)

이 경우 번역은 문화적 다양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문화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 물론 옹구기는 공용어의 효용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아프리카 개별 언어의 고유한 개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사용될 경우를 전제한다. 이때의 공용어는 기존의 식민지의 유산인 서구의 언어가 아닌 다른 무엇이어야 한다.(35)

옹구기가 아프리카의 통합을 위해 번역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선 “범아프리카적 접근성”을 위해(Interviews 236)서 즉, 아프리카 민중이 아프리카의 문화유산에 접근 가능하도록 해줄 것이기 때문이며, 둘째로 이를 통해 식민지의 체제와 문화를 이어받은 이후 구성된 사회의 “신식민주의의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일부”(237)로서 기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옹구기는 세계화를 신식민주의의 쌍생아로 보고 있다. 세계화는 “글로벌 중산층”(global middle-class)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할 것이기 때문에 세계화로 구성되는 이웃 간에는 필연적으로 “적대적 진영”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평등, 형제애, 자매애, 자유, 이웃됨이 진정한 도덕적 가치인 전통 농촌의 이웃 간의 상부상조”의 미덕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10%의 부유한 나라와 국가 내의 일부 계층이 “전 지구 생산의 90%를 차지하는” 패력을 영속화시키는 불행의 원인이라고 본다.

그런데 범아프리카주의는 “민중 대 민중의 관계”를 먼저 고려하자는 입장이기에 단순히 세계화의 일부로서 상호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보다 적극적인 차원이다. 여기서 번역은 서로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번역은 상이한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전제하는데, 이들 언어가 만나는 지점은 곧 새로운 가능성의 혼종적 경계지대가 되기 때문이다. 옹구기는 이 문화적 뒤섞임이 일어나는 “경계지대 공동체”(border communities)를 중시한다. “경계”가 근대국민국가의 국경선과 다르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서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경계지대에는 이 두

지역의 교집합적 주체들이 생겨나기 마련인데 이들은 “식민시대에 나뉜 국민 국가에 도전”하는 문화를 구성한다.⁹⁾ 응구기는 현재의 아프리카의 질곡은 다양한 문화적 기원을 가진 부족들이 혼재하던 공간에 인위적인 국경선을 채우고 그 공간 속을 살게 된 아프리카인들이 국민국가의 이기적인 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범아프리카주의는 이러한 근대의 국민국가의 과도한 욕망을 제어하는 수단이 된다.

응구기는 범아프리카주의적 의식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시각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그것은 다른 주체들과의 관계성을 인식하는 윤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가 『정신의 탈식민화』(*Decolonising the Mind*)에서 주장하는 아프리카 언어의 회복은 식민주의로부터의 해방을 모색하는 실천 즉, “자유로운 관점의 모색”의 일환이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이 당장 필요한 이유는 서구중심주의와 식민주의의 족쇄를 벗어난 그 관점을 통해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 우주 속 다른 자아들과의 관계에서 바라보기 위해서”(87)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나아가 그는 아프리카 자신에 대한 관점은 같은 입장에 있는 다른 지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곧 “관계성에 대한 탐색”(the quest for relevance)으로서 쉽게 말해 A지역이 B지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할 의무이다. “아프리카인과 서인도제도 그리고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이의 관계”(98)에 대한 인식 즉, 범아프리카적 의식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이 세 지역의 흑인들이 “동일한 생명-지리학적 뿌리”를 가졌다는 사실, 둘째, “노예제의 오욕과 착취, 그리고 식민주의라는 동일한 과거”를 가졌다는 사실, 셋째, “세계의 모든 흑인의 완전한 자유에 대한 동일한 열망”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은 포스트식민성을 공유한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제 3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응구기의 주장이다. 그는 아프리카인에게 비단 같은 아프리카인, 같은 흑인뿐만 아니라 트리컨티넨탈에 거주하는 민중에게도 같은 의무감과 연대의식을 가질 것을 요구

9) Ngugi wa Thiong'o, "Europhone or African Memory: the Challenge of the Pan-Africanist Intellectual in the Era of Globalization," *Wajibu: A Journal of Social and Religious Concern* 21. <http://africa.peacelink.org/wajibu/articles/art_7516.html>

한다. 그리고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옹구기가 지역의 연대를 생각하는 이유는 국민국가를 규정하는 “국경”의 절대불변성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없듯이, “국가는 분명히 성장하고 변화한다. 국가는 변하지 않으며 통합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Interviews 349).

옹구기가 생각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국가를 넘어선 통합은 동아프리카(East Africa)지역의 통합이다. 그는 이 지역이 공유하는 특징을 크게 다음 두 가지 즉, 첫째 “공통의 언어” 둘째, “외국의 지배에 대한 저항과 내적 억압에 대한 투쟁이라는 공통의 전통”(Moving the Centre 170)을 든다. 그는 키스와힐리어(Kiswahili)야말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언어이며 “통합의 언어이며 문화접촉과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언어”였다고 정리한다. 또한 역사적으로 이들 지역은 식민지배에 저항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몸바사(Mombasa)의 포르투갈 저항운동, 탄자니아의 마지마지(Maji Maji) 독일 무장투쟁, 케냐의 마우마우(Mau Mau) 영국 무장봉기를 통해 얻은 경험은 이들 세 지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같은 지리, 같은 저항 전통,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강력한 연방정부 하에 6천만 민중을 경제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정치 통합만 이룬다면 이는 21세기를 대응하는 놀라운 토대가 될 것이다”(172)고 전망한다. 이는 옹구기가 꿈꾸는 “식민주의 국경과 국적의 분리에게 작별”(172-3)을 고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다만 그것은 “반신식민주의(anti-neo-colonialism)와 민주주의”(174)를 토대로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옹구기의 후기소설 『마티가리』(Matigari)는 소설의 무대를 “가상의” 시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이전의 다른 작품들과는 구별되는데, 『마티가리』는 특정한 시공간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이 소설 속 ‘가상의 공간’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포스트식민의 보편 공간’ 즉, 좁게는 아프리카이며 넓게는 트리컨티넨탈 지역 모두를 가리키고 있다. 그는 『『마티가리』와 통일 동아프리카의 꿈』(“Matigari and the Dreams of One East Africa”)이라는 글에서, 『셋강』(Between the Rivers)에서 『마티가리』에 이르는 소설의 무대는 “동아프리카의 문학적 상상력을 지배하는 자연풍경”(Moving the Centre

163)이라고 설명한다. 이 말은 그가 그동안 케냐라는 하나의 국민국가에만 시선을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 순간 탕가니카(Tanganyika), 우간다(Uganda), 케냐(Kenya)를 아우르는 지역을 하나의 연방체로 구상한 “하나의 동아프리카 연방(An East African Federation)”을 꿈꾼다. 그것은 아프리카인들의 오랜 숙원인 “범아프리카주의 정신”의 구현이며 궁극적으로 “아프리카합중국(United States of Africa)의 전제로서 정치적으로 통합된 지역에 대한 꿈과 비전”(176)의 땅이라는 것이다. 응구기의 비전은 이처럼 구체적이다.

IV. 나가며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아프리카주의는 응구기와 같은 독립 이후 1세대 뿐만 아니라 현재의 청년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아프리카인 아규먼트>의 편집진에 따르면, 오늘날 아프리카 전역에서 일고 있는 신세대의 범아프리카주의는 독립 초기의 신념 즉, 구세대의 신념과는 다르다. 최근 아프리카 젊은이들 사이에서 범아프리카주의는 “종교에 필적”(something close to a religion)한다. 그 이유는 세계화의 영향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국가의 경계선이 약화된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이들은 자국의 정치 경제적 환경에 우선적으로 주목한다. 21세기 범아프리카주의의 총아는 “중산층 아프리카 지식인 계층”(educated grouping of middle-class Africans)이다. 이들은 아프리카의 정체성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들은 범아프리카주의를 아프리카의 정체성과 통합이라는 원래의 목적 외에도 “민주주의, 좋은 거버넌스 및 경제개발”(democracy, good gover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과도 연결시켜 생각한다. 최근의 “아프리카 역내교역, 대학 간 교환, 좋은 거버넌스의 증대와 확산,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범아프리카주의의 대륙 전체로의 확산” 등은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현상이다.¹⁰⁾ 요컨

10) AfricanArgumentsEditor, “The rise and paradoxes of pan-Africanism today.”
 <<http://africanarguments.org/2015/06/30/the-rise-and-paradoxes-of-pan-africanism-today/>>

대 아프리카 청년들은 과거 독립 1세대가 지역의 발전보다는 범아프리카주의의 이념에만 매몰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전의 범아프리카주의가 “아프리카의 정체성과 통일”만을 반복하여 찬양한 것이었던 반면, 오늘날 범아프리카주의를 지지하는 청년들은 “민주주의와 경제개발”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이들 청년 세대의 범아프리카주의의 주축이 경제활동과 정치적 자유를 주장하는 중산층 지식인이라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옹구기가 염려하듯이, 경제적 자유와 개인의 행복추구는 서구적 근대 모더니티를 구성한 개념이기도 했으며 그것이 부의 집중과 분배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옹구기는 아프리카어의 쇠퇴를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식민지 시절의 공용어인 서구의 제국주의 언어를 포스트식민 사회에서도 사용하는 것에 일정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용어의 확산이 범아프리카주의의 부활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실제,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는 <아프리카연합>의 공용어로서 아프리카 각 지역 출신 주체들 간의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옹구기가 주목하고 있는 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스와힐리어(Kiswahili)가 공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범아프리카주의의 개념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외국인혐오증과 같은 반동적인 현실을 간과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일 것이다. 차차게는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종식 이후 더욱 심해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외국인에 대한 폭력 사태를 범아프리카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하면서 이 문제는 “대륙적 차원 즉, 범아프리카주의라는 견지에서 다루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프리카인들의 역할-아프리카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대륙적인 인식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고정무역을 통해 [아프리카의] 경제를 통합하여 [아프리카] 대륙과 인민들을 재건할 필요”¹¹⁾가 있다는 것이다.

11) Chambi Chachage, “Xenophobia Vs Pan-Africanism: Is This How South Africa Remembers Tanzania's Hashim Mbita?” <<http://africanarguments.org/2015/05/05/xenophobia-vs-pan-africanism-is-this-how-south-africa-remembers-tanzanias-hashim-mbita-by-chambi-chachage/>>

아프리카인이 아프리카인을 향한 외국인혐오증은 우월의식과 쇼비니즘이 결합한 자국중심주의가 값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해 증가한 실직에 대한 공포와 마약의 유입과 확산 등에 대한 반감이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의 지도자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개입함으로써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2015년의 폭력사태는 주변국의 반감을 불러일으켜 남아공 기업과 국민들이 외국에서 보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해나가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들의 경제 상황을 개선해나가는 일과 함께 지역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와 연동되어 있다는 인식을 함께 심어줄 필요가 있다. 범아프리카주의적 인식은 남아프리카공화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포함하는 아프리카 전체에 필요한 인식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옹구기의 주장하는 범아프리카주의의 개념은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정희석, 「동북아 지역의 평화지향적 범아시아주의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제17권 2호, 2009.
- Chachage, Chambi, “Which Pan-Africanism? A Critical Reading of Ngugi’s ‘Re-Membering Africa’,” <<http://www.flaxcala-int.org/article.asp?reference=234>> (검색일: 2015.12.16.)
- _____, “Xenophobia Vs Pan-Africanism: Is This How South Africa Remembers Tanzania’s Hashim Mbita?” <<http://africanarguments.org/2015/05/05/xenophobia-vs-pan-africanism-is-this-how-south-africa-remembers-tanzanias-hashim-mbita-by-chambi-chachage/>> (검색일: 2015.12.20.)
- Fanon, Frantz, *The Wretched of the Earth*, Trans, Richard Philcox, New York: Grove Press, 2004.
- _____, “Frantz Fanon Speech at the Congress of African Writers in 1959,” *Pan-African News Wire*. Dec. 24. 2008. <<http://panafricannews.blogspot.kr/20>

- 08/12/frantz-fanon-speech-at-congress-of.html> (검색일: 2015.12.10.)
- Golinger, Eva, "A Union Is Born: Latin America in Revolution," *Global Research*, Dec. 8. 2011. <<http://www.globalresearch.ca/a-union-is-born-latin-america-in-revolution/28116>> (검색일: 2015.12.21.)
- Hall, Stuart,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Identity: Community, Culture, Difference*, London: Lawrence&Wishart, 1990.
- Nantambu, Kwame, "Pan-Africanism Versus Pan-African Nationalism: An Afrocentric Analysis," *Journal of Black Studies*, 28.5, May 1998.
- Ngugi, wa Thiong'o, "African Identities: Pan-Africanism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Capitalist Fundamentalism," *Macalester International* 14.9, 2004.
- _____, "After 50 Years, Unity Is Still an African Dream," *The Guardian*. May 23. 2013.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3/may/23/unity-dream-african-union-inspire>> (검색일: 2015.12.15.)
- _____, *Decolonising the Mind: the Politics of Language in African Literature*. Oxford: James Currey, 1986.
- _____, "Europhone or African Memory: the Challenge of the Pan-Africanist Intellectual in the Era of Globalization," *Wajibu: A Journal of Social and Religious Concern* 21, <http://africa.peacelink.org/wajibu/articles/art_7516.html> (검색일: 2015.12.16.)
- _____, *Matigari*, Trenton: Africa World Press, 1998.
- _____, *Moving the Centre: the Struggle for Cultural Freedoms*, Oxford: James Currey, 1993.
- _____, *Ngugi wa Thiong'o Speaks: Interviews with the Kenyan Writer*, Ed. Reinhard Sander & Bernth Lindfors, Trenton: Africa World Press, 2006.
- Spivak, Gayatri Chakravorty, *Outside in the Teaching Machine*, New York: Routledge, 2009.

❖ ABSTRACT

Ngugi wa Thiong'o's Pan-Africanism: People's Memory and Alliance to Overcome Postcolonial Nations

Lee, Hyoseok

In modern history, there have been several kinds of continental unions or supranational politico-economic unions in the world, such as the United Nations, the European Union, the Union of South American Nations, the African Union, etc. Modern thinkers proposed many pan-isms on their continental base, for example, Pan-Arabism, Pan-Latin Americanism, Pan-Asianism, Pan-Celtism, etc. What is the most common in these pan-isms is that a continental union would be a politico-economic system to overcome the limits of the modern state-nation and to realize a long and happy relationship between member nations and continents. However, the concept of a supranational union differs from that of cosmopolitanism, in that the former presupposes the common cultural and historical heritage in the concerned region or continent. Ngugi wa Thiong'o's Pan-Africanism implies two keywords that are connected to his concepts such as 'decentralization' and 'African languages.' Pan-Africanism supposes that Africa may gain benefits from the union of African nations under the umbrella of anti-colonial efforts to down size the Euro-American influences. Moreover, using African languages enhances self-reliance and self-imagination among the African people. For in the former colonial regimes, the European colonial languages, such as English, French, or Portuguese, were central to the dissemination of European culture and modernity. Ngugi asserts that the African peripheralized languages could reinstate the African cultural heritage and propose an alternative to the Western modernity.

Key Words

Ngugi wa Thiong'o, Pan-Africanism, Frantz Fanon, postcolonial, black consciousness

논문접수일: 2016년 0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03월 07일

게재확정일: 2016년 03월 10일